

## 1997년도 定期總會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2月 18日 오후 2時 한국종합전시장 3층에서 통상산업부 徐士鉉 생활공업국장과 전기관련 단체장 및 회원사 대표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7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 보고와 비상근 선임 및 해임(안), '96년도 수지결산 승인(안), '97년도 업무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날 확정된 금년도 업무계획 및 수지예산을 보면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8% 증액된 1,310백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중 사업비를 기술수준 향상과 수출산업화 촉진, 정보화 사업 확대 및 업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난해 보다 24% 증액 편성하였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보면 우선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품목 외에 고부가가치화 사업 대상품목, 용접생산성기반 기술대상품목 등 유망 과제발굴을 다양화 하고, 기술개발자금 지원 규모도 150억원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진흥회 자체로 조성중에 있는 『중전기 기술개발자금』을 금년 부터 업계에 지원

하고, 기술개발 우수업체를 선정 포상하는 등 중전업계의 연구의욕 고취와 기술개발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중전업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수출 유망지역인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수출 촉진단을 파견하고, 태국 ELENEX 전시회 등 해외 유명 전시회에 공동 참관단을 파견한다.

그동안 미국전기공업협회(NEMA) 등 8개국의 전기공업 단체와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 기술교류 및 각종 정보자료 등을 교환하고 있는 진흥회는 금년도에도 외국 단체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류를 강화 할 계획이며 특히, 해외 전력기자재 구매기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전 업계의 유망 수출시장인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전력청 구매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생산시설 및 제품수준을 직접 견학케 함으로써 우리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계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증대를 위해 진흥회내에 정부, 진흥회, 업계로 구성된 『수출촉진대책반』을 설치하여 수출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해외 동향 파악, 무역수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

는 상설대책반을 매월 운영한다.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업계의 ISO 9000 품질인증 획득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ISO 14000 국제환경경영체제 규격에 대한 인증 획득을 장려하고 품질경영 체제 조기 정착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 품질 인증원과 품질 시스템 인증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경험, 인적자원을 상호 활용하고 진흥회가 추천 한 회사에 대해서는 인증비용 일부를 감면해 주도록 업무협정을 체결하며, 이밖에도 신개발 제품에 대한 단체규격 표준화 대상품목 조사 등 업계의 품질경영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KOTRA, KOEX와 공동 주관하에 2회에 걸쳐 개최한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을 내년부터는 진흥회 단독으로 개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장소임대 등 제반 준비업무도 금년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추진한다.

진흥회는 이외에도 전기산업 관련 기술 및

경영 정보 수집과 해외 정보를 신속 다양하게 전파하는 등 정보화 서비스 업무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PC 통신인 “KIS”망을 통해 국내외 전기정보를 보급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인터넷에 『전기산업 홈 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업계의 생산제품 및 이미지를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진흥회는 금년에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와 인터넷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현안 애로요인을 조사·개선하는 등 업계에 대한 서비스 업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진흥회는 정기총회가 끝난 뒤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및 진흥회에서 개설한 홈 페이지에 대한 홍보 내용 설명회도 가졌다.